

김상용의 시세계

李 鍾 鶴

〈차 례〉

- | | |
|--------------------|---------------|
| 1. 서 론 | 4. 〈노래읽은 뼈꼭새〉 |
| 2. 〈南으로窓을 내져오〉 | 5. 결 론 |
| 3. 〈내 生命의 참 詩 한 首〉 | |

1. 서 론

김상용(1902~1951)은 인생의 본질을 무상하고 허무한 것으로 깊이 통찰한다. 인생뿐만 아니라 만상과 인위가 모두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¹⁾ 이러한 인식이 그의 삶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형이상학은 동양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 것이다. 동양사상의 장구하고 성숙된 전통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형이상학은 상당히 안정되고 깊이가 있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김상용은 시대현실에서 상실과 억압에 대한 강한 체험을 하게 되었음을 들어내고 있다.²⁾ 그가 살았던 시대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특히 그것을 강렬하게 느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렬한 현실체험이 현실에 대한 울분과 비애의 정서³⁾를 형성하게 된다.

김상용의 인생에 대한 위와 같은 허무의 형이상학과 질곡하는 현실에 대한 강렬한 체험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강한 친화력을 가진 것이지만,

- 1) 「『오-마-』, 카이암의 〈루바이얌〉 研究」, 「記憶의 조각 조각」(『月波金尙籍全集』 金澤東 編著, 새문사 刊, 1983, 10월)
- 2) 「無何先生放浪記」(ibid.)
- 3) 「無何先生放浪記」의 〈序〉, (ibid.)

특히 그의 내면에서 강렬한 친화력을 발휘하여 융합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구체화한다.

“우선 인생이란 놈! 요놈의 뜻이 당초에 알기가 어렵다. 어찌 보면 둥글 둥글 수박도 같고, 또 어찌 보면 뽕죽비죽 제법 圭角도 졌다. 요리 생각하면 요런 듯 하다가도 조리 생각하면 어느 틈에 조런 탈을 쓰고 앉는다. 요놈! 하고 먹살을 잡고 들여다 보면 의례히 칠면조 대가리가 되어 빛이 변한다. 九尾狐로 둔갑을 한다. 이런 정체불명의 괴물을 일생의 반려로 타고난 우리의 팔자가 애초부터 우거지같이 굵다. 인생도 봐 보면 꼭 불 타이다. 그러기에 인생이 요강 같다는 정의도 그 존재를 주장할 권리가 뚜렷하다.”⁴⁾

그는 인생을 ‘요강’ 같다고 규정하게 된다. 위의 논의가 상당히 익살맞지만 그러나 아주 진지하다. 그는 진지하게 인생은 요강 같다고 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정체’⁵⁾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는 인생이 요강 같음을 인식하고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나아가 ‘법열에 도취됨을 느꼈었다’⁶⁾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열이 아니라 쓰디 쓴 발견이다. 그는 인생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면서도 익살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아이러니칼한 표현을 구사한다. 이것은 인생문제에 대한 그의 성숙성을 들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문제에 관한한 그는 서구의 것을 새롭게 도입하려 하지 않고 동양적인 전통을 저항없이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⁸⁾

어쨌든 그는 인생을 요강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간직했음에 틀림없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인생에 대한 허무의식과, 현실에 대한 박탈과 구속의(현실) 체험이 융합되어 형성된 삶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념과 현상을 삶의 실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강이라는 이미지는 그의 삶에 있어서 집약적이고 구심적인 의미와 힘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경 인생의 참 맛을 알았을 때 인생의 참 속을 우리 눈으로 들여다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오, 결코 우리가 멀리서 볼 때, 때

4) 「無何先生放浪記」(ibid.) p.234.

5) 「無何先生放浪記」(ibid.) p.234, p.236, p.267, p.266 등

6) ibid., p.234.〈인생의 정체〉

7) ibid., p.236.〈깨달음을 얻는 순간〉

8)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기 보다 그의 인생관·기질·취향 그리고 시조에 대한 관심, 자연친화적인 의식, 그의 서나 산문에 나타난 예지에 대한 관심 등에서 유추한 것이다.

어둡고 생각할 때의 그 인생이 아니란 말이요, 건전쩍쩍하단 말이요, 지런내가 난단 말이요, 어웅, 컴컴하단 말이요, 멀리서 보면 그럴 듯하되 급기야 마주 당해 보면 건전쩍쩍하고 어둡 컴컴한 것이 무엇이요, 꼭 요강밖에 그런 것이 없단 말이요. 결국 인생이 요강밖에 같다 할 것이 없오, 이미 인생 자체가 요강 같으니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요강밖에 같을 것이 없단 말이요, 사람들을 자세히 봐 보오, 깡그리 요강 같단 말이요. 요강의 어느 부분하곤나 같지 아니한 놈이 없단 말이요.”⁹⁾

“뽀족한 체 하는 놈, 요놈은 요강뚜껑의 꼭지란 말이요, 원만한 체 하는 놈은 요강중푼이요. 뽀둥이는 요강 밑바닥이란 말이요, 속이 컴컴하고 음흉한 놈은 요강 속이고, 좀 바라진 놈은 요강 뚜껑 채쳐 놓 것 같이 외다.”¹⁰⁾

“소위 성현이란 자가 요강 부셔 논 폭박에 못 되는 것이고, 악하다, 간사하다 해야 오줌 곁에 앉은 요강 이상 고약할 것이 없단 말이요. 그런 중에 공동공같이 적뽀도 모르고 인생 운운, 아는 체 하는 친구는 요강치고는 내다 버려야 할 이빠진 오지요강이외다.”¹¹⁾

인생에 대한 위와 같은 통찰과 인식은 상당히 본질적인 것(인생의 정체)이지만 그러나 삶의 해체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명성과 권력과 돈을 극도로 혐오하는 의식을 들어내게 된다.¹²⁾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체험하기는 하지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다. 이러한 점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의식의 미숙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면이다. 그는 의식의 측면에서 삶의 현실에 밀착하지 못하고 유리되며, 그래서 심각한 식민지 현실과 민족의 삶의 실상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면 때문에 그는 현실회피적인 전원 시인으로 규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타당한 규정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규정으로는 그의 시는 총체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그의 전원예 대한 취향은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의 을분과 비애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메카니즘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그의 형이상학과 그에 따른 현실인식의 비논리적 미숙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안이한 의도는 아닌 것이다.

그의 시는 총체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그의 인생예

9) ibid., p.266. <인생은 요강 같다!>

10) ibid., p.267. <인생은 요강 같다!>

11) ibid., p.267. <인생은 요강 같다!>

12) ibid., p.267. <名聲아 없어져라!> p.274 <삼백만원을 이렇게 쓰다>

대한 형이상학과 현실체험에서 온 좌절의식의 융합에서 기인한 삶의 해체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추구이다.

그것은 그의 삶의 과체요 보람으로서 그에게 ‘참’이요 ‘진실’인 것이다.

그는 ‘참’과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그에게는 지성을 초월한 예지였으며, 시대적 요청과 역사적 시의성을 초월한 참가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용의 전 시편을 해명해 내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라야만 그의 시의 특징이 밝혀질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의 시에 대한 일면적 이해¹³⁾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상용의 시는 언제나 인생의 총체성에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의 시는 진지하고 예지적이다. 그의 시는 예지를 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 들어내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형상성보다는 서술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현실문제에 관해서는 ‘느껴움’을 드러내고, 인생문제에 관해서는 예지를 들어낸다. 이는 다시 말해서 피상성과 관념성의 노정이다. 그의 현실문제에 대한 피상성은 현실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의 내면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은 그의 현실에 대한 순수한 연민으로서의 휴머니티이다. 휴머니티는 그의 마음의 따뜻함이지 지성의 날카로움이나 행위의 힘은 못된다. 아울러 그의 예지도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2. 〈南으로窓을 내겠오〉

김상용은, 서론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그의 인생에 대한 발견과 현실 체험에서 얻은 느낌을 융합해서 ‘요강’이라는 구심적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현상적인 삶을 해체하고 근원적인 인생을 복원하고자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인생의 복원이 가능한 장소를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고향은 과거의 어떤 장소, 추억으로 미화된 구체적 장소로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고향은 미래의 어떤 장소이며, 극단적으로 말해서 절대적인 어떤 공간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는 추억이 없다. 추억이 없기 때문에 구체성도 없다. 다만 막연한 동경으

13) 金澤東, 「金尚谿의 詩世界」(ibid.) p. 424, 李健淸, 『韓國田園詩연구』, 文學世界社 刊, (1986년) 참조.

로서의 고향이고, 어디에도 없는 고향이며,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하나 남은 일새’에서 현현되는 고향인 것이다. 고향을 찾아 막연히, 막무가내로 찾아 헤매어야 할 뿐이며,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원시적인 산수 자연 그것도 아니다.

뒤로 山
숲이 돌리고
돌스새에 샘 솟아 적은 내오.

들도 쉬고
재스빛 매뿌리의
꿈이 그대로 깊소.

瀑布는 다음 골(谷)에 두어
안거당 ‘靜寂’에 잠기고...

나와 다람쥐 印친 산길을
넝쿨이 아꼈으니

나귀 끈 장꾼이
찾을려 없오.

‘寂寞’함께 끝내
낡은 거문고의
줄이나 고르랴오.

긴 歲月에게
追憶마자 빼앗기면

풀잎 우는 아늑
혼자 가겠오.

〈서그른꿈〉 전문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의 발견이다. 정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며, 그래서 고향이 될 만도 하다. 넝쿨이 사람 사는 자취를 감추어 주기 때문에 세속과 절연된 고상함도 맘껏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낡은 거문고의 / 줄이나 고르랴오//’라고 고전적 취미를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곳에 끝내 정착하지 못한다. 그러한 생활은 결국 ‘寂寞’할 뿐이고, 그 적막이 ‘追憶’을 뺏아 버리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전 시편에서 추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정지용과 같은 추억이 들어나지 않는다. 아마 그 추억은 삶의 보람이나 진실쯤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한다. 그의 추억은 말하자면 노천명의 〈사슴〉에서와 같은 근원에 대한 추억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그는 그 추억을 찾아 또 떠나야 하는 것이다. ‘서그픈 꿈’이란 좌절된 꿈일 것이다. 이때의 좌절은 꿈의 좌절 포기 내지 체념이 아니라 장소의 선택에 대한 좌절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꿈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 풀잎우는 아침 / 혼자 가겠오 //” 하는 것이다.

것는(겉는?) 樹陰밖에
달빛이 흐르고,

물에 씻긴 水晶같이
내 哀傷이 호젓하다.

아-한조각 구름처럼
無心하던들
그 저녁의 濤聲이 그리워
이 한밤을 걸어 새기야 했으랴?

〈追憶〉 전문

여기서의 ‘追憶’은 물론 ‘濤聲’이다. 그것은 감성적 체험이며 상당히 맑고 깊은 인상이다. 그러나 김상용이 그리워하는 것은 濤聲의 인상 그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추억은 ‘이 한밤을 걸어새’어야 했던 그리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濤聲이 일깨워 준 어떤 근원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그가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것은 종체적인 어떤 것이고 濤聲과 같은 지엽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만약에 濤聲 그 자체가 그리웠다면 그 濤聲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성이 없음이 그의 시를 관념적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무게의 중심은 濤聲보다 ‘이 한 밤을 걸어 새기야 했으랴?’라는 고향을 찾는 근원적인 해매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벽 별을 잊고
山菊의 ‘맑음’이 불려도
걱들없이
길만을 가노라.

길!
아-먼 진흙길

머리를 드니
가을 夕陽에
하늘은 저리히 멀다.

높은 가지의
하나 남은 잎새!

오래만에 본
그리운 本郷아.

〈새벽 별을 잊고〉 전문

‘길! / 아-먼 진흙길//’에서 상당히 관념적인 시적 인식을 느끼게 된다. 그가 ‘겨를 없이 / 길만 가노라//’한 것은 관념의 추구이며, 총체적인 관념으로서의 고향을 찾아 가는 것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향을 통찰하게 된다. ‘높은 가지의 / 하나 남은 잎새!//’에서 本郷을 직관하는 것이다. 本郷이라는 어휘에서도 관념성을 파악할 수 있다. ‘本’이라는 말이 상당한 관념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만에 본’은 직관을 통한 근원への 복귀감이다. 그러한 복귀는 일시적이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림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착감을 허락하지 못한다.

人跡 끊진 山속
돌을 깨고
하늘을 보오.

구름이 가고,
있지도 않은 故郷이 그림소.

〈鄉愁〉 전문

이 시는 그의 墓碑에도 새겨진 시다. 그의 故郷은 어쩌면 ‘하늘’ 그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있지도 않은 故郷’인 것이다.

그의 故郷은 어디에도 없는 고향이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찾을 수 없다. 그의 고향은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미래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고향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고향다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결국 허무를 더해 줄 뿐이다. 그는 상실감과 허무를 극복하면서 고향을 일구어 내어야 진짜 고향을 비로소 찾게

된다. 그것이 <南으로窓을 내겠오>이다.

南으로窓을 내겠오.

밭이 한참가리

쟁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오.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오.

새 노래는 공으로 드르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南으로窓을 내겠오> 전문

‘南으로窓을 내겠오’는 고향의 건설로 보여진다. 고향을 찾음 보다는 고향을 만듦으로써 정착할 수 있고 상실감을 극복할 수도 있어서 근원への 복귀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향을 만듦으로써 삶의 형이상학과 태도를 확고히 할 수 있게도 된다. 이러한 경지는 감성적인 경지를 떠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끝내 동양의 정신적인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 ‘南으로窓을 내’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 상실에 대한 비애의 감의 지엽적 정서인 추억에서 그것들을 총체화한 향수로 이행하게 하여 끝내는 고향에 복귀하게 되는 정신적 편력의 집약이다. 이는 자연의 발견도 전원 에 대한 그리움도 아닌 인생문제의 해결이며, 김상용의 독특한 시세계이다. ‘나귀 끈 장쑤꾼’도 못찾게 하려던 단절의시에서 “강냉이가 익결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의 화합의식을 성취해 낸 정서적 성취이다. 이러한 경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로 어쩔 수 없이 귀의하게 되는 전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경지인 것이다. 김상용은 다만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고향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그의 삶에 있어서의 참의 실현이고 진실의 회복인 것이다. 그러나 김상용은 실제로 남으로 창을 낸 전원 에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고향은 관념의 고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련의 자연에 대한 시편들은 전원시편으로 독립시키기 보다는 그의 인생문제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그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동일시의 추구를 들어내는 일련의 시편들과 연관되게 되고, 그의 사회의식을 들어낸 시편들이 결국

그 자신의 내면의 따뜻한 휴머니티를 들어내는 것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의 진실에 대한 추구 즉 현실적인 삶의 해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통일성을 형성하게 된다.

3. <내 生命의 참詩 한首>

김상용의 시세계는 해체와 복원의 과정이다. 이러한 양상을 가장 선명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시편들이 그의 해체된 자아에 대한 인식과 복원에 대한 염원을 시화한 일련의 시편들이다.

그와 같은 시편들은 첫째, 인생의 과정에서 별로 성취한 것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해야 할 사명은 큰데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 그것을 허락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거나 둘째, 인생에 대한 숙명의 자각이며, 셋째, 동일시의 대상을 통한 자기 회복이나 현상적인 자아의 부정을 통한 근원예의 복귀를 주제로 한 것들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결국 첫째와 둘째로써 자아에 대한 해체의식을 진지하게 들어내고, 셋째로서 복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일련의 시적 노력은 <내 生命의 참詩 한首>로 집약 귀결된다.

虛空에 스러진
나는 한점의 無로—

풀밀 버레 소리에,
生과 사랑을 느끼기도 하나

불거품 하나
비웃을 힘이 없다.

오죽 懷疑의 진은 기우리며
야원 地軸을 스러워 하노라.

<마음의 조각(1)> 전문

임금(능금?)접질만한 熱情이 있느냐?
‘죽엄’의 거리여!

씩은 진흙 골에서
그래도 섬찾는 몸이 될가.

<마음의 조각(2)> 전문

‘虛空에 스러질 나는, 한점의 無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물거품 하나 / 비웃을 힘이 없다//’는 자아 인식은 철저한 자아 해체의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삶에 대한 ‘요강’의 인식과 같은 것이다.

“인생아! 하고 나는 고함을 쳤다. 마치 물에 빠진 어린애를 부르듯 하였다. 무엇이 되리라 하던 내 인생이었다. 그 인생이 결국 요강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요강밖에 못 되고 말았다. 절망은 이런 때 와야 한다. 슬픔이 나를 시달렸다. 하늘로 눈을 돌렸다. 눈물 때문에 하늘이 콩죽 같았다. 눈물을 씻고 다시 생각을 해 보았다. 슬프다. 인생은 역시 요강밖에 될 것이 없었다. 깨달음은 변전을 초월한다.”¹⁴⁾

‘인생이 요강 같다’는 인식은 ‘절망’과 이어진다. 그는 인생을 절망한다. 그래서 ‘오죽 懷疑의 진을 기우리며 / 야원 地軸을 스러워...’하게 된다. 그는 인생을 서러워 하면서 삶에 대한 ‘熱情’을 반문한다. 그는 스스로 삶에 대한 熱情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삶은 바로 ‘죽음의 거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삶을 절망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복원을 기도한다. 복원의 기도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깨달음’이란 말이 그것이다. ‘깨달음’이란 근원적인 자기인식이면서 곧 자기회복의 발견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씩은 진흙 골에서 / 그래도 샘찾는 몸이 될가//’라고 하여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이 대목에서 자기 해체가 철저하면 할수록 근원적인 자기에로의 복원이 더욱 완전해 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복원은 현재의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모두 부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현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녹여 버림으로써 복원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生の ‘기리’와 幅과 ‘무게’녹아,
한낱 구슬이 된다면
붉은 ‘독아니’에 더지리라.

心臟의 피로 이루어진
한 句의 詩가 있나니—

‘물’과 ‘하늘’과 ‘님’이 바리면

14) *ibid.*, p.236. 〈깨달음을 얻은 순간〉

외로운 다람쥐처럼
이 보금자리에 쉬리로다.

〈마음의 조각(8)〉 전문

‘구슬’이미지의 뜻은 귀중한 것, 순수한 것, 완전한 것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용이 실현해 보고자 하는 삶의 궁극적 가치는 ‘구슬’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가치는 또한 ‘心臟의 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피도 역시 순결한 것, 그러한 삶에의 열정을 환기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현실이 ‘요강’ 같음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이 ‘구슬’과 ‘심장의 피’의 상태가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의 상태의 회복이면서 또한 긍정적 이상이기도 한 것이다. 김상용의 상실감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본래의 상태에서 이탈되었음이며, 그래서 그는 사랑의 행위로서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 놓고자 한다. 그것이 그의 일련의 사랑의 시이다.

무죄 검타만 마소
달구면 녹아
太初의 목숨 범었든
溶鑛으로 도라가나니

님이여 그대 純情으로
이 甦 還元시킨 후
님의 원하시는 그로
만들지 않으랴오.

〈祈願〉 전문

‘太初의 목숨 범었든 / 溶鑛으로 도라’감이 궁극적인 자기 회복이며, 그러한 회복은 ‘님’의 ‘純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甦’이 ‘還元’된 상태가 ‘님’을 만나는 상태이고, 내가 ‘님’이 되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한 상태 내지 경지에서 만이 나는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경지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뜨거움은 바로 ‘詩’ 그 자체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를 인위나 예술로 보지 않고 의식의 ‘溶鑛’의 상태, ‘心臟의 피’의 상태 ‘구슬’의 상태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鄉愁’로 때로는 ‘狂夫’의 ‘울분’과 ‘비애’로, 때로는 ‘祈禱’ 내지 ‘祈願’으로, 때로는 ‘南으로窓을내’는 故鄉의 건설로 詩化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진실한 느껴움’, ‘참詩’의 상태로서의 그의 시세계인 것이다. 그의 ‘참詩 한首’는 詩한 首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변용되어 가야 할 그러한 상

태 내지 경지인 것이었다.

그대 앞 감박어리는
내 生의 초스불도 꺼질 때가 올것이 아닌가.
그대 아-이 초스불이 꺼지랴 할 그 때
가룩한 그대여 내 마즈막 자리로 오게.
그리하여 내 마즈막 선물을 받게.
오즉 그대만을 주라하여
가장 깨끗한 피와 눈물로 써 두었든
내 生命의 참詩 한 首를
마즈막 선물로 받게.

내 초스불 꺼진 後 내 선물 펴보아 주게.
내 녀의 달못하든 呼訴
내 녀의 못 아되든 서름
내 녀만이 알든 목마름
내 녀만이 품었든 怨恨
다 써어 재된 그 자리에
무덤우 피는 山菊花가티
피어난 내 生命의 참詩 한 首를
그대 홀로 펴보아 주게.

그때 그대는 나를 보시리.
썩은 풀덤이 가튼 내 살림살이에
반되스불 가티 감박어리는
내 녀를 보시리
장터에서 혼자 것든 나를 보고
출추며 한숨짓든 나를 보리
사라오든 내가 아닌
살라하든 可憐한 나를 보시리.

그때 그대는 나를 아시리.
내 모든 것을 아시리.
왜 내가 머리를 흔들든가를 알고
왜 내가 떨든가를 알고
왜 내가 가든 길 멈추고 두런저리든가를 아시리.
왜 내가 山을 따르고 바다를 그리워하고
밤中만 혼자 이러 앉졌든가를 아시리
왜 별을 바라보고 왜 내 옷자락이
마를 때 없었든가를 아시리.

〈내 生命의 참詩 한首〉 1-4연

김상용의 ‘내 生命의 참詩 한首’는 ‘사라오든 내가 아닌 / 살라하든 可憐한 나’의 기록인 것이다. 그가 ‘살라하든’ 삶의 경지는 ‘반되스불¹⁵⁾의 경지, ‘팽이’¹⁶⁾의 경지이기도 하며, 그래서 때로는 ‘해바라기’¹⁷⁾로서의 자아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 경지로서 하나의 정신적 낭만,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이다. 그래서 그는 열망으로서 그러한 동경의 순수성을 알릴 수 있을 뿐이다. 순수한 열망의 상태로 삶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그의 삶은 ‘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詩’가 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신적 경지와 보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노래 잃은 뻘꼭새>

김상용의 현실인식 즉 ‘사라오든’ 나에 대한 인식은 ‘요강’이요 ‘노래 잃은 뻘꼭새’이다. 그것은 절망이기도 하고 ‘無何’¹⁸⁾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울 수도, 사회와 민족을 위해 울어 줄 수도 없었다. 그는 ‘冷酷한 無感을 구지 祈願’할 수 밖에 없었고, ‘狂夫로서 狂態·狂言’을 거짓 꾸며 낼 수밖에 없었다.¹⁹⁾

나는 노래 잃은 뻘꼭새
봄이 어른거리건
사립을 달치리라.
冷酷한 無感을
구지 祈願한 마음이 아니냐.

장미빛 구름은
내 무덤 쌀 붉은 깊이어니

이러해 나는
소라(靑螺)같이 설어워라.

‘때’는 지꽃어

15) 16) 詩 <반되스불>, <팽이> (ibid., p. 18)

17) 詩 <해바라기>, (ibid., p. 76)

18) ‘無何’는 허구적 인물로서 일제시대의 질곡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김상용의 정신적 대응방법을 들어내 주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진다.

19) ibid., 233. 「無何先生放浪記」

꿈 심겼던 터전을
荒廢의 그늘로 덮고...

물짓는 處女 도라 간 黃昏의 우물스가에
술술히 빈 동이는 노혔다.

〈노래 잃은 뼈꼭새〉 전문

“우리에게는 한 때 마음 놓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던, 申丹齊 선생이 말씀한 ‘任情歌哭亦難爲’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슴에 넘치는 비통에 우리는 병어리(狂夫)가 아니 될 길이 없었다. 無何는 이러던 한 시절의 소산이었으니 그는 곧 者의 모습이자, 독자 제언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는 미쳐, 혹은 거짓 미친 체로 天外隻驅, 가없는 나귀 하나를 벗삼아, 방랑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의 광태와, 狂行과 광언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君子 다만 그의 광증 속에 그의 告하려던 울분과 비애를 읽어 주시면, 필자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하리라.”²⁰⁾

‘사라오던’ 그는 시대적인 현실 앞에 ‘병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실상황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그는 그 현실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실의 도전에 적절한 응전의 형식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는 申丹齊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대응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任情歌哭亦難爲”는 치열한 저항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김상용은 그의 논리를 배제하고 있다. 논리가 배제되었으므로 ‘울분과 비애’로 충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狂夫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그의 지성으로 꿰뚫지 못했거나 그러한 노력을 채념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타개할 어떤 방안도 갖지 못한다. 심정적인 ‘울분과 비애’에 사로잡힐 뿐이다. 이러한 심적 상황이 바로 ‘冷酷한 無感’의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노래를 잃고 철저히 내면화 한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관심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는 역사에 대한 사명감과 문명에 대한 전망, 사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들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풀어 내지를 못한다. 이는 식민지 논리와 역사의 진전에 대한 지적 분석과 통찰 및 그에 따른 인식의 미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심정의 토로나 막연한 연민의 정을 들어냄에 그친다. 그의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 민족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보인 시편들은 ‘인생의 정체’에 대한 관심

20) ibid., p.233. 「無何先生放浪記」

을 보인 지편들 보다 치열성이나 시적 응축력이 부족하며 보편성도 없고 따라서 공감을 끌어내는 힘도 미약하다.

맑은 하늘은 새님이 오신 길!
사랑같이 아츨별 밀물 짓고
'에트나'의 傲慢한 '포-즈'가
미읍도록 아릅저 오르는 黑煙
現代人의 뜨거운 意慾이로다.

〈굴독노래〉 제 1 연

맑은 하늘에 솟아 오르는 '黑煙'은 '現代人의 뜨거운 意慾'이라고 예찬한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면서 그에 대한 알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바다수가 깨여지는 물결
山도루 설레는 바람
들로 나리는 물 다 함의
이나라엔 노래하는 이 없느냐
잊거든 나오라 외치는고나.

幸여 날다려 그림아닐까?
그래 나는 가슴을 뒤지고 잊네.
그러나 아-거문고의 줄은 없고나.

〈그러나 거문고 줄은 없고나〉 제 1 연

새 역사의 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나 그러나 그 사명감에 부응하지 못한다. 새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막연한 열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아츨의 大氣는 宇宙에 찻다./ 동편하늘 붉으레 불이 붓는데 / 權域의 일군아 일어나거라./ 너 의들의 일때는 아침이로다. //"²¹⁾의 추상성을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의 〈殺妻因의 質問(1)~(2)〉²²⁾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은 이산되고 마침내 자식이 굶어 죽게 되어 그의 아내는 실성해 거리를 떠돌며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옥을 해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는 뜨거운 인간애로서

21) 詩 〈일어나거라〉 (ibid., p.32)

22) p. 35 (ibid.)

그의 아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殺妻로 또 다시 법망에 잡혀 이제 본인도 사형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그는 절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떠나기 前 또 한번 / 옳고 옳은 것을 밝게 가란다는 法과 / 博愛와 正義를 파는 그대들에게 / 못노니 ‘나는 眞實로 罪人인가?’ //” 라고, 식민지 현실을 이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殺妻의 극한적인 행위를 ‘博愛와 正義’의 휴머니티로 밖에 정당화하지 못하는 의식은 현실인식과 그 대응논리의 미숙함일 뿐이다. 그외에 그의 극도로 궁핍화된 민족의 삶의 실상과 그러한 사회현실 및 ‘萬寶山同胞慘殺’²³⁾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도 심정적이고 인간애적인 연민이나 비애 그 이상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물론 시대적 제약도 강하게 작용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김상용의 현실에 대한 논리적 인식의 미숙성을 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가 그러한 미숙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음도 결국 그의 지나친 관념에의 경도라고 판단된다. 사실 그는 사회현실에 대한 혁명을 원하고는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이고 관념적인 순진성과 기계적 단순성을 들어내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破壞의 暴君!

그러나 洗滌과 更新의 役軍아,
세차게 팔을 둘러
허겁쓰러기의 堆積을 쓸어 가라.

霜刀으로 心臟을 헤쳐

사특, 傲慢, 微溫, 巡邏 에여 바리면

純眞과 潔白에 빛나는 냇이

구슬처럼 새 아름에 빛나기도 하려나...

〈颯風〉 제 8-9 연

5. 결 론

본론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김상용은 먼저 인생의 본질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허무하여 ‘연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그는 현실문제를 민감하게 체험하여 그것을 느낀다. 나아가 김상용은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하나

23) 詩 〈無題(3)〉, (ibid., p. 51)

로 융합하여 인생은 ‘요강’ 같다고 단정한다. 이것이 김상용의 인생관이요 인생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김상용의 그러한 깨달음을 쓰디 쓴 발견이라고 보고 그러한 쓰디 쓴 발견을 인생관으로, 그리고 인생태도로 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일단 자기 해체의 삶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자기 해체의 삶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그의 시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며, 그러한 시세계를 밝혀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시세계를 그의 삶에 대한 해체적 인식과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시세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삶의 해체적 인식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일단 부정하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참’과 ‘진실한 느껴움’이며 그의 시에서는 ‘피’와 ‘구슬’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그다운 특성은 진지한 실천에의 의지이다. 그래서 그의 형이상학은 바로 도덕이 된다. 이러한 도덕이 그의 시의 진실이며, 일련의 이러한 인식과 노력, 형이상학과 실천은 근본적으로 동양의 전통사상에 연결되어 있어서 안정되고 성숙한 느낌을 주게 된다.

둘째, 삶의 해체적 인식의 눈과 촉각으로 ‘나라의 역사, 시대, 민족의 삶의 실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과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에는 이르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겠지만, 더 깊은 원인은 그의 위의 문제에 대한 지적 통찰력의 부족으로 보았다. 새로운 문명이 형성 보급되고 있고, 시대가 그러한 문명에 대한 참신한 기대로 의욕과 활기를 가지는 반면 특수성으로서 식민지 현실의 지배논리의 이기성과 음모성을 다 함께 동시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통찰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맥락 속에서 역사를 보고 시대현상을 보며 민족의 삶의 실상을 보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한 미숙성을 들어 내었다. 인생문제에 관한한 그는 현상을 꿰뚫었지만, 현실문제에 관한한 그는 현상을 꿰뚫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문제를 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성과 감성은 유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나절이나 더운 방에서 / 主義, 道德, 人情을 떠든 / 내 가련한 꿈을 부끄러워 하얏노라. //”²⁴⁾ 민족의 박탈되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위와 같이 반성함을 볼 때, 그의

24) 詩 〈無題吟二首〉. (ibid., p.58)

‘主義, 道德, 人情’을 논하는 지성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유리되지 않았다면 그는 분노해야 할 것이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고嘆息한다. “우리 겨레는 왜 氣力이 없다. / 왜 그리 죽은 상 밖에 하지를 못하나. / 왜 그리 無表情한가. / 동모야, 이런 嘆息을 그만두세. //”²⁵⁾ 시 전체의 문맥을 볼 때 ‘嘆息을 그만두세.’가 또 하나의 嘆息임을 알 수 있다. 냉정히 객관적으로 민족적 현실을 인식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뜨겁게 대처하여 嘆息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울분과 비애’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연민과 인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냉혹하고 기계적인 식민지 논리를 그러한 문제의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임이 자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시는 깊이에 실패하고 시적 형상력과 응축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문제에 관한 그의 관심과 그 해결(휴머니티)은 결국 그의 삶의 해체적 인식에 대한 해결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실의 확립, 참의 획득에 이르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이들 시의 존재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용의 시세계를 자기해체적 인식에서 자기 복원의 과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시세계에 대한 규정이 그의 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라고 믿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일단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그의 시세계의 진실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그의 시의 존재근거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여태까지 그의 시를 전원으로만 규정해 온 통념은 일단 반성되어야 하고 그의 시를 전원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인생문제의 해결에 대한 성실함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평소에 늘 “사람은 깊은 맛이 있어야 하느니라”²⁶⁾라고 교훈한 사실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게도 될 것이다.

25) 詩〈無題吟二首〉, (ibid., p.58)

26) 蘆天命: 「金尙鎔評傳」, (『自由文學』, (1946, 6월호, p.155.)